



KBS노동조합 특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8번지 전화 02)781-2703 팩스 02)781-2999 이메일 kbsunion@kbs.co.kr 발행인 최재훈 편집국장 권태훈

더 이상 KBS를 이대로 둘 수 없다!

김인규 사장 부임 이후 지난 2년여 동안 KBS는 안팎으로 크고 작은 논란과 시비로 몸살을 앓았다. 무엇보다 뉴스와 방송프로그램의 공정성과 제작 자율성이 크게 후퇴되고 훼손됐다. 뿐만 아니라 도청 의혹 등으로 인해 논란과 상처만 남은 수신료 현실화 추진과 이에 따른 경영 부실은 회사를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했다. 이런데도 김인규사장은 측근 및 무능 간부만을 계속 중용함으로써 결국 모든 경영진이 스스로 일하지 않고 사장의 입만 쳐다보는 작금의 상황을 스스로 초래해버렸다. 정권 차원의 특혜 속에 출범한 종편과 민영미디어랩 등이 KBS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지만 경영진은 제대로 된 대응책 하나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구석이 없을 만큼 작금의 KBS의 현실은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당한 권리를 통해 KBS를 바로 세우자!

이제 단체협약에 보장된 우리의 권리를 통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 경영권에 대한 감시와 견제 권한인 본부장 신임투표가 그것이다. 단체협약이 보장하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한을 통해 공영방송에 대한 사고와 철학조차 없는 무능한 경영진을 이제 심판하자!

연대와 통합을 위한 실천에 나서자!

이번 본부장 신임투표는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와 함께 실시한다. 공영방송의 독립과 제작 자율성 수호의 최후 보루를 지켜온 KBS노동조합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본부장 신임투표를 사상 처음 공동으로 실시하면서 변화와 역동의 새해를 시작하고자 한다. 지난해부터 우리 사회 내 화두로 등장한

연대와 통합은 갈수록 열악해지는 노동과 제작여건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가장 확실한 무기임에 틀림없다. 이제 그 연대와 통합을 위한 첫 발을 내딛는다.

다시 한번 KBS의 주체임을 당당하게 선언하자!

방송노동자로 거듭나고 우리가 KBS의 주체임을 당당하게 선언했던 지난해 임금파업 이후 정치와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공영방송 KBS를 만들고자 하는 투쟁이 다시금 시작됐다. 이점에서 이번에 실시되는 본부장 신임투표는 단순한 투표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올 상반기 단체협약 개정투쟁을 앞두고 노동조합의 단결된 힘으로 공영방송을 지킨다는 의지의 결집점이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우리가 KBS의 주체임을 당당하게 선언할 때이다. 지난 1년간 보도와 경영 두 분야의 정점에서 뉴스 및 프로그램을 이끌어 온 고대영 보도본부장과 KBS의 살림살이를 맡아 온 박갑진 시청자본부장에 대한 냉엄한 심판을 내려 줄 것을 조합원들에게 요청한다. <v>

본부장 공동 신임투표!!

오늘(12일)부터 부재자 투표 시작



48호

2012년 1월 12일(목요일)

kbsunion.or.kr

〈고대영 보도본부장 1년〉

정권에 눈 감고, 약자에 귀 닫고, 진실은 뒷전



정권(실세)에 대한 비판 대신 침묵 그리고 찬양

개각 때마다 위장전입과 논문 이중게재, 땅 투기 등 부정부패 각종 비리 의혹이 넘쳐 났지만 KBS뉴스는 이를 거의 보도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는 그 도를 더했다. 위키리크스의 MB 실정 폭로에 대해서는 아예 보도조차 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것으로 드러난 내곡동 사저의 경우에는 사건 설명이나 의혹 제기 보다 청와대의 해명을 우선 보도하는 등 보도에 있어 최소한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았다. 독재시절에나 했던 뉴스 편집 관행을 부활시켜 대통령 관련 소식을 뉴스 앞부분에 내보내는 행태가 이뤄졌다. 지난해 3월 아랍에미리트에서 이뤄진 MB의 유전 개발권 확보 소식을 전하면서 방송 3사의 메인뉴스들이 일본 자진 참사를 집중 보도하던 시점에 KBS는 뉴스 중간 7분여에 걸쳐 대통령의 업적을 찬양하는 뉴스를 내보낸 것이다. 80년대 이른바 '땡전뉴스' 시절에나 볼 수 있었던 모습이었다.

사회적 약자 보도는 철저하게 외면

반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도는 철저하게 외면했다. 특히나 300일 넘는 김진숙 씨의 골리앗 크레인 투쟁, 유성기업 파업 보도, 대학 내 비정규직 청소 노동자 등 노동관련 보도에선 오히려 사용자 입장에서만 사안을 바라보려 했다. 이른바 '힘없고 뺨없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따뜻한 시각과 이들의 목소리를 전달한데 KBS 뉴스는 인색하기 그지없었다. 지난해 5월 일어난 유성기업 파업 보도의 경우에는 노사 간 합의제한 '사회갈등 보도준칙'마저 지키지 않았다. 파업의 이유는 도외시한 채 파업에 따른 생산차질만을 근거 없이 부

풀려 보도하는 관행을 되풀이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파업하는 놈은 나쁜 놈'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대 재생산하는 데 KBS 뉴스는 일조하고 말았다.

언론의 사명인 진실 규명은 뒷전

이 같은 악습이 되풀이되는 현실에서 진실의 설 자리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천안함 사건이 대표적이다. 사건 당시부터 진실 보다는 정권의 입을 자처했던 KBS는 지난해 3월 천안함 사건 1주기를 맞아도 언론의 본령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사건의 실제적 진실에 대한 의문과 궁금증이 여전했고 대북관계 경색에 따른 한반도 위기 그리고 고 이에 대한 군의 위기 대응능력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올 법 했다. 그러나 KBS의 거의 모든 보도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위로 그리고 북한에 대한 분노로 도배되었다. 이는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거나, 사회의 중요한 의제를 설정하는 저널리즘 본연의 자세와는 한참 거리가 먼 것이다. 1TV가 광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처럼 인보를 팔아 장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닐까? 시청자들은 진실을 원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을 비롯한 우리 사회 내 강자의 목소리만을 대변하는 공영방송은 시청자들에게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언론 본연의 자세를 확립해야 한다. < >

- 고대영 보도본부장** 1985-04-01 입사
 2001-04-07 시청자센터 부주관(홍보)
 2009-01-01 보도본부 보도국장
 2010-02-26 보도본부 해설위원실장
 2011-01-03 보도본부장

〈박갑진 시청자본부장 1년〉

경영진의 무능은 罪다



박갑진 본부장, 1년동안 한게 뭐가?

지난 해 6월 수신료 인상이 도청 의혹으로 물 건너갔을 때 조합은 사측에 구성원에 희망을 주는 비전을 제시하라고, 재정안정화 대책과 조직개편으로 조직을 추스려야 한다고 수없이 요구한 바 있다. 조합 이사측에 재정안정화대책을 요구하던 이때, 그리고 그 이후, 회사의 살림살이를 실질적으로 책임져야 할 박갑진 본부장이 과연 어디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 조합은 도통 모르겠다. 경영을 대표하는 본부장으로서는 어려운 재정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했고, KBS 경영에 대해 이렇다 할 비전도, 인사혁신도, 조직시스템 개혁도 보여주지 못한 채 '수신료는 된다'고 반복적으로 외쳐대며 철저히 보수 위주의 자세를 취한 박갑진 본부장,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본부장을 모시며(?)살아야 하는가.

박갑진 본부장은 작년 1월 본부장에 취임하면서 '더 낮은 자세로 더 겸허한 자세로 KBS인들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취임사를 보는 조합이 다 민망하다. 날로 심화되고 있는 직종간, 본부간, 본사 지역간 갈등을 관리하고 사안마다 정파적으로 나누어 싸움

만 골몰하는 이사회 등 사분오열된 KBS 현실에서 박갑진 본부장이 얼마나 소통의 역할을 했는지 조합은 매우 궁금하다. 무능한 본부장으로 인해 일과 성과를 통해 자신들의 비전을 성취하려는 해당 직종의 젊은 후배들 사이에 자신감보다, 추진력보다 냉소주의가 팽배해 있다는 사실을 박 본부장은 알아야 한다.

'무대책, 무소신, 무능 경영진은 반드시 퇴진해야 한다'

조합은 금번 본부장 신임투표를 통해 무능 경영진을 심판하고 KBS의 미래를 보다 밝게 만들려 한다. 2012년 신년에 희망을 제시하지는 못할망정 '올해 역시 적자가 확실하다'는 저 대책 없고 무능한 경영진. 조합원의 예외없는 투표로 심판해야 한다. 우리의 투표를 KBS를 살린다. < >

- 박갑진 시청자본부장** 1986-01-30 입사
 2000-06-12 대전방송총국 총무국장
 2003-05-19 영업국 부주관(광고운영)
 2009-11-25 인력관리실장
 2011-01-03 시청자본부장

공고

박갑진 시청자본부장/고대영 보도본부장 신임투표

KBS 노동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단체협약에 따라 취임 후 1년이 경과한 박갑진 시청자본부장과 고대영 보도본부장에 대한 신임투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1. 신임투표 대상:

박갑진 시청자본부장, 고대영 보도본부장

2. 투표자

- 본사: 시청자본부 및 보도본부 소속 조합원
- 지역총국: 시청자서비스국 및 보도국 소속 조합원
- 지역국: 총무팀 소속 및 기자(취재, 촬영) 직종 조합원

3. 투표 관련 일정

- 투표자 명부작성 및 열람: 2012. 1. 5. ~ 2012. 1. 9. (5일간)
- 부재자 투표: 2012. 1. 12. ~ 2012. 1. 13. (2일간)
- 본 투표: 2012. 1. 16. ~ 2012. 1. 18. (3일간)

4. 기타

- 투표일 투표시간은 08시부터 19시까지
- 개표는 본 투표 끝난 뒤 실시
- 투표결과에 따른 조치는 1월 정례 공방위에서 할 예정

2012. 1. 3. 본부장신임투표 관리위원회